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

모세의 땅에서 가자까지;
우리가 선택할 평화

김강희 지음



글빛브레인

종교, 정치, 피로 엮인 수천 년의 기록



이슬람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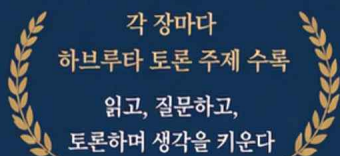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각 장마다
하브루타 토론 주제 수록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을 키운다

역사를 알면 질문이 보이고, 질문이 보이면 평화가 보인다

저자 소개

김강희

글빛브레인 출판사 대표 · 글빛브레인 교육센터 대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사고하는 힘을 키워온 교육자이다. 독서를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하브루타 기반의 토론 교육과 사고력 훈련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책은 한 번의 궁금함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을 이해하고 싶었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싶었으며,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와 종교, 정치가 얹힌 수천 년의 흐름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 책은 그 질문을 독자와 함께 나누기 위한 하브루타형 사고 확장 콘텐츠로 완성되었다.

현재 독서, 토론, 글쓰기를 연결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고력 중심의 강의 콘텐츠를 통해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저서

『내 맘대로 나를 바꾸는 뇌 신경망 고속도로』 뇌과학 기반으로 감정과 습관을 재설계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서.

『쓰는 뇌는 늙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생각을 구조화하고,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실전 가이드.

『트레이딩 브레인』 흔들리는 뇌에서 부자의 뇌로 -시장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다루는 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트레이딩 전략서.

『글빛브레인 문해력』 수능 국어까지 연결되는 문해력 훈련 교재 -읽기, 이해, 표현을 연결해 초등부터 수능까지 이어지는 공부의 핵심 능력을 만드는 실전 교재.

『AI시대 살아남는 공부법』 조선의 공부법과 현대 뇌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한,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사고력과 공부습관을 뇌과학 기반으로 설계한 학습 전략서.

이메일 hopekang99@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opekang99

유튜브 ggumkeykanghee (@꿈키강희)

전화 010-2506-5064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

역사 · 종교 · 정치 · 전쟁 · 미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첫걸음



머리말

2026년 봄 새벽,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멈췄다.

전날 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했다는 소식이 떴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이제 좀 안정되겠구나. 내가 거래하는 시장도 이제 좀 숨을 고르겠지. 평범한 중년인 나에게 세계 뉴스는 그런 의미였다. 나의 자산이 오늘 얼마나 움직이는가?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알림이 쏟아졌다. 이스라엘이 밤새 레바논을 공격했다. 이란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리고 차트를 열었다. 이상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요즘 세상은 그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예측한 방향과 반대로 흘렀다. 전쟁이 터져도, 휴전이 되어도, 내가 공부해온 차트의 흐름과 현실은 자꾸 어긋났다. 평상시의 차트 흐름과 전쟁 중의 차트 흐름은 달랐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앞에서 흔들렸다.

불편했다. 아니, 두려웠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내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네타냐후의 결정 하나에, 이란의 움직임 하나에 내가 거래하는 시장이 출렁였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계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

그 질문 하나를 붙잡고 파기 시작했다.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곳이 나왔다. 오늘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어제의 역사를 알아야 했다. 어제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전날의 종교를 알아야 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3,200년 전 이집트의 람세스 시대까지 닿았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 교과서 사이에 몰래 끼워 읽던 람세스 이야기. 그 책 속에 모세가 나왔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 홍해를 가르는 장면. 그 얇은 지식이 지금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지면 결국 세상이 보인다.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중동 전문가도 아니다. 뇌과학과 교육을 연구하고, 금 선물을 공부하고, 틈틈이 책을 써온 평범한 중년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은 AI의 도움을 받은 책이다.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가다 보니 한 권의 책이 되었다. 모르면 질문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도 질문은 시작된다. 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수천 년간 싸우는가? 영국은 왜 같은 땅을 두고 아랍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약속을 했는가?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어떻게 힘을 키워 조선을 더 깊이 지배하게 되었는가? 궁금함의 연결고리를 가감 없이 따라가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역사와 이렇게 깊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정리하려 했다. 찾으면 찾을수록 내용이 깊어졌다. 람세스 시대의 이집트에서 시작해 2023년 가자지구 전쟁까지. 4000년의 이야기가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었다. 블로그 글로 담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다. 그래서 책이 되었다.

나는 교육자다. 2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왔다. 이 책을 쓰면서 내 아이들이 자꾸 떠올랐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트레이딩도 고민하고 있는 아들이 이 책을 읽고 세계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했으면 했다. 딸은 서울국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국제 사회로 나아갈 아이에게 이 책 한 권이 세계를 보는 눈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국제 무대에서 살아가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중동 전쟁의 구조,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같은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만나온 훈련생들도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그 아이들 모두에게. 더 나아가 이 책을 펼친 모든 독자에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코끼리를 코 하나만 만지고 전체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나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존중한다.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부딪히며 사고를 키우는 하브루타 방식이다. 이 책에 각 챕터마다 하브루타 토론 코너를 넣은 것은 그 때문이다. 구성은 세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본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다. 2단계는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치열하게 생각을 맞부딪히는 토론 명제다. 어느 한쪽이 옳다는 답이 없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는 책의 내용을 지금 나의 삶, 우리 사회, 우리 역사와 연결하는 확장 질문이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결국 나의 이야기임을 느끼는 단계다.

이 세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역사를 읽는 것을 넘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혼자 읽어도 좋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도 좋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유대인의 교육에서 배울 것은 배우되, 그들의 방식이 만들어낸 갈등과 모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

어야 한다.

나는 교육이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끌어내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란 무엇인가? 4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며 나는 그 답을 거꾸로 찾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태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 속에서 죽어간 아이들. 홀로코스트의 가스실에서 사라진 유대인 어린이들. 지금 이 순간 가자지구의 폐허 속에서 울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 그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그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전쟁은 언제나 권력을 원하는 어른들이 일으켰다. 돈과 땅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신의 이름을 빌렸다. 신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신을 위한 전쟁이다. 4000년 동안 그 말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4000년 동안 아이들이 죽었다.

나는 그것이 신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신은 다른 것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믿음, 소망, 사랑.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종교가 무엇이든, 민족이 무엇이든, 그것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의 변화는 교육에서 시작된다.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믿음이 더 깊어졌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인간이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이

다. 하지만 4000년의 역사를 다 쓰고 나서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신은 이것을 원했을까?

전쟁은 무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해로 끝난다. 이 책이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이 진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아주 작은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책을 세상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나의 아들에게,

국제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딸에게,

내가 만난 모든 훈련생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친다.

2026년 봄

진정한 평화를 상상하면서...

김강희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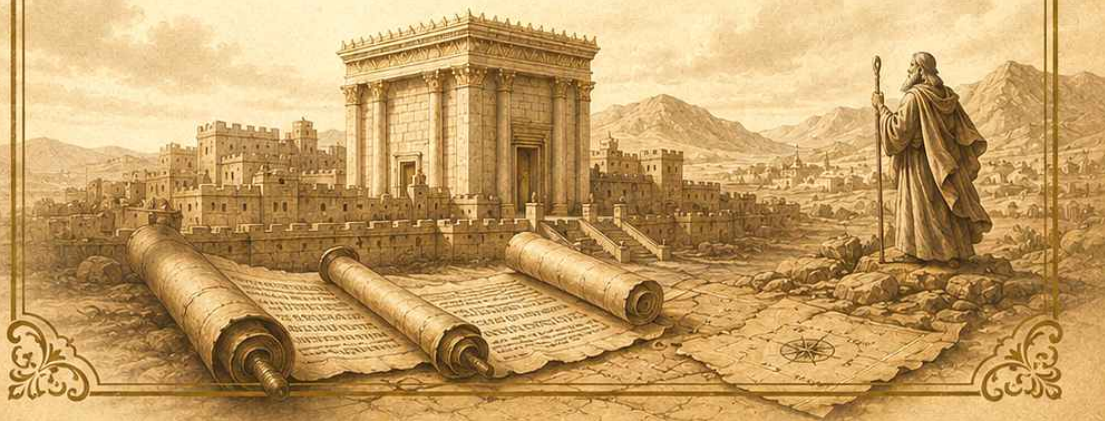
머리말	5
-----------	---

1부. 신의 땅이 시작되다 고대 이스라엘의 탄생	16
-----------------------------------	----

1장. 람세스 2세와 히브리 노예	18
2장. 모세의 등장	23
3장. 출애굽 — 역사인가? 기적인가?	28
4장. 약속의 땅, 가나안	35
5장. 첫 번째 멸망 — 바빌론 유수	39
6장.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관계는?	43

2부. 흩어진 민족 2000년의 유랑	61
-----------------------------	----

7장. 로마에 의한 두 번째 멸망	62
8장. 유럽에서의 박해	67
9장. 시온주의의 탄생	74



3부. 귀환 이스라엘 건국의 진실 81

10장. 1차 세계대전과 영국의 이중 약속	82
11장. 홀로코스트 — 역사상 가장 큰 비극	94
12장. 1948년 이스라엘 건국	98
13장. 중동전쟁의 역사	103

4부. 지금의 구조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110

14장. 가자지구란 무엇인가?	112
15장. 레바논과 헤즈볼라	118
16장. 이란은 왜 개입하는가?	124



5부. 미국은 왜 이스라엘의 편인가? 전략, 신념, 정치의 연결고리 130

17장. 미국과 이스라엘, 형제가 된 역사 132

18장. 기독교 시온주의 139

19장. AIPAC — 미국 의회를 움직이는 힘 144

6부. 이스라엘 내부를 파헤치다 150

20장.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152

21장. 네타냐후는 누구인가? 160

22장. 극우 정치인들의 등장 166



7부. 지금 이 순간 2023년 이후 172

23장. 2023년 10월 7일, 무슨 일이 있었나? 174

24장. 전쟁의 현재 180

25장. 이 전쟁은 끝날 수 있는가? 185



맺음말 193



부록 - 주요용어정리 198

이스라엘, 세계사, 한국사 연표 207

하브루타 토론방법 안내 209

참고문헌 213

서지정보 218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

제 1 부

신의 땅이 시작되다

— 고대 이스라엘의 탄생 —

한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대한 인물들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다.



1장

람세스 2세와 히브리 노예

강대국 이집트와 그 속에
억눌려 있던 히브리 노예의 생활



2장

모세의 등장

오래된 약속과 선장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3장

출애굽 — 역사인가? 기적인가?

열 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4장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정복과 정착
사사 시대



5장

첫 번째 멸망 — 바빌론 유수

솔로몬 이후의 군열
바벨론의 침략과 성전 파괴, 상황



6장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관계는?

공통된 뿌리, 다른 길
세 종교의 연결과 갈등



1장. 람세스 2세와 히브리 노예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이집트였다. 나일강 주변에 세워진 이 거대한 제국은 수천 년째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웅장한 신전, 끝없이 펼쳐진 사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단 한 명의 왕. 그의 이름은 람세스 2세였다.

[용어 해설] 파라오

고대 이집트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왕을 부르는 말이다.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신의 명령처럼 따랐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79년부터 무려 66년간 이집트를 다스렸다.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를 지킨 파라오 중 한 명으로, 전쟁

에도 뛰어났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좋아했다. 지금도 이집트 곳곳에 그가 남긴 신전과 석상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웅장한 건축물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필요했다.



이집트의 노예들

람세스 2세는 제국 곳곳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외래 민족들이 모두 강

제로 동원되었다. 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용어 해설] 히브리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 살아온 민족으로, 훗날 유대인이라 불리게 되는 사람들의 먼 조상이다.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며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이었다.

히브리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히브리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집트 왕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언젠가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결국 이집트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기로 결정했다. 거대한 건축 현장에 동원하고, 무거운 돌을 나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강요했다. 탈출도, 거부도 허락되지 않았다.

두려움은 더 잔인해졌다